

ACC 시네마테크서 영화로 여름 달래요

1961년 작 '오발탄'·다큐 '거미의 땅' 등
김동령·박경태 초청 관객과의 대화도
아카이브프로그램, 김곡 감독 작품 상영



김곡 감독



'거미의 땅' (감독 김동령, 박경태)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과 '커티컬' 프로그램이 다시 선보인다.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은 김곡 감독의 작품들로 시작한다. 한국 영화계에서 꼬까 감독으로 통하는 김곡은 동생 김선과 함께 독립·실험영화부터 장르영화까지 다방면의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타협영화집단 '곡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두 형제 감독은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철학과 과감한 연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오리존티 경쟁부문 진출, 벤투버국제영화제 옹호상 부문 특별언급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는 김곡의 초기작부터 13편을 수집, 주요작 4편이 본 프로그램에서 상영된다. 김곡

은 최근 영화의 개념과 역사를 재구성한 '투명기계(갈무리, 2018)'를 발간했고 작년부터 한겨레 신문의 '김곡의 푹푹'이라는 정기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21일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김곡' 상영 후 감독의 무대인사가 이어진다.

ACC 시네마테크에서 13일 오후 3시 선보이는 1961년 작품 '오발탄'은 한국영화계의 리얼리즘 거장 유현목 감독의 대표작이다. 전쟁 후 소시민들의 빈곤과 방황을 유현목만의 영상미학적 기법으로 담아낸다.

20일 오후 2시 김동령, 박경태 감독의 '거미의 땅'이 상영된다. '거미의 땅'은 철거를 앞둔 미군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인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민하며 장르적 진실성과 영화적

실험성을 모두 담아낸 작품으로 완성했다.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최고영예라 할 수 있는 아미가타 국제다큐영화제에 한국 최초로 경쟁부문 진출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 '거미의 땅' 상영 후에는 김동령, 박경태 감독을 초청하여 무대인사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마련한다.

지난 달 개최된 노동자뉴스제작단 특집 '내가 뉴스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에서 전시·상영 중인 노동자뉴스제작단의 포스터, 전단지, 카탈로그, 영상자료들도 30일까지 함께 ACC 시네마테크 6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꾸며줄 예정이다. ACC 시네마테크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기생기자 ginguilove@srb.co.kr

'나'와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인문마을' 프로젝트 가동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경은·문화전문대학원)이 광주 광산구 3개 마을플랫폼들과 함께 6~7월 2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호남학연구원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학술연구사업 및 공익활동 지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각 마을플랫폼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실천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번 인문마을 프로젝트는 로템인문마을(신창로 로템나무카페), 달꿈인문마을(하남대로 달꿈카페), 까망인문마을(비아중양로 도란도란카페)에서 각각 진행된다.

로템인문마을에서는 루선의 '들꽃',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와 치유를 나누는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달꿈인문마을은 하남동에 있는 김봉호 가옥(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5호)에서 고전과 고건축을 화두로 담소를 나누며 우리 일상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까망인문마을은 동네 걷기를 통해 '나'의 위치에서 우리 동네 비아를 다시 바라보고 '나'의 시각과 말로 마을의 이야기 및 문화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자기서사의 장으로 마련된다.

인문마을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기성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술연구의 이론적 성과가 지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녹아들뿐 아니라, 지역민의 인문학적 수요에 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젊은 건축가상'에 건축공방·아이디알·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



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연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2019 젊은 건축가상'에 건축공방(박수정, 심희준),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이승환, 전보림) 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윤한진, 한승재, 한양규) 등 3팀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3팀이 지원,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 시찰·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 3팀, 총 7명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희)에서는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준공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완성도, 건축가로서의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진정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수상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지역이나 사회에 대한 애정과 배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친 작가의식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두르세요

1인당 8만원 지원... 전화로 재충전 가능
요가 등 월회원권·VR체험 이용범위 확대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 문화누리카드가 지난 5월 말까지 6만1천여 명에 발급됐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 전용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맹업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케이블TV 요금 결제에 이어 올해는 수영·헬스·요가 등의 월회원권, VR체험, 방탈출체험, 실내레포츠,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도 가능해졌다. 또한 광주패밀리랜드(놀이공원), 롤러홀릭(롤러점), 스튜디오 예감(사진관)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재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화(ARS) 재충전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발급된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을 통해 직접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2019~2020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도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문의 062-670-7914.

김혜진기자 hj@srb.co.kr

"별놈의 국악 무대가 다 있네이~"

15일 오후 7시 풍류달빛공연

대금이누나·이희문컴퍼니 출연
색다르면서도 재밌는 무대 준비



대금이누나

통령상, 2014년 KBS 국악대상 민요상, 2015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한 실력 있는 소리꾼이기도 하다.

이희문컴퍼니의 공연 '거침없이 일씨구'에는 이희문과 함께 그의 어머니 고주랑 명창, 뽕뽕, 먼데이씨스터즈, 숙씨스터즈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긴아리랑', '한 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오봉산타령, 한강수타령', '매화타령, 양류가', '아리랑쓰리랑, 노랫가락차차차, 이팔청춘가', '양산도, 태평가', '노랫가락, 장부타령',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풍류달빛공연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MBC가 공동주관하며, 매월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무료공연이다. 문의 062-232-2152.

김혜진기자 hj@srb.co.kr

젊은 대세 국악인들의 독특하면서도 재밌는 국악 무대가 여름밤 찾아온다.

풍류달빛공연이 15일 오후 7시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이누나, 이희문컴퍼니가 출연한다.

대금이누나(김지현)는 중요무형문화재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현재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금 연주자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대금 독주곡 '청송곡', 전세계를 흥린 아이들그룹 방탄소년단의 'Fake

Love', 영화 '타이타닉' OST 'My Heart Will Go On' 등을 연주한다.

이희문컴퍼니 대표 이희문은 국악에 재즈, 힙합, 록 등 현대적 음악을 접목한 신선한 음악과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국악계의 이단아로 통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동시에 2010년 제16회 전국민요경쟁대회 종합부분 대



조선대 미술관 개관 30년...비상 꿈꾼다

오는 7월 28일까지, 본 전시 '물, 생명, 상상력' 전
금민정·박상화 등 국내 작가 현대설치 작품 선배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등서도 작품전 다채

조선대 미술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개최되는 2019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에 맞춰 개관 특별전을 진행하는 등 남도를 넘어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도약에 나선다.

조선대 미술관은 올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조선대를 넘어, 남도를 넘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화와 함께 동시대 현대미술의 실험 현장으로 변모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이 조선대 축구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에게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올해 개교 73주년을 맞은 조선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

트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대 미술관에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메인 전시인 '물, 생명, 상상력'을 개최한다. 전시 오프닝 행사는 오는 20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금민정, 김인경, 박상화, 박선기 등 국내 작가의 현대 설치미술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조선대 본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에서는 근·현대 남도 미술의 전통을 화려한 색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전이 마련된다.

이밖에 조선대 캠퍼스 곳곳에서 스트리트 아트 작업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자리에는 프랑스 출신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인 세프(Seth), 제이스(Jace), 루도(Ludo)가 참여한다. 스트리트 아트 진행 과정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조선대 미술관은 지난 1989년 1월 미술대학 2층에 건립된 이후 1992년 6월 정식 미술관으로 승인됐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20일까지 접수...교육비 무료

전남대가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교육생을 모집,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남대 광주·전남 한옥설계 교육원(원장 전득염 교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한옥전문인력(한옥설계)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돼 건축사 및 예비건축사, 건축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옥설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6월 말부터 약 5개월간이다.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통해 4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소정의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등 실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은 과정별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해, 한옥 전문 교수진의 이론수업, 문화재실측설계 전문기 및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의 한옥실습, 현장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생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한옥설계 전문인력으로 추천된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